



원정 대성사 27주기 멸도절 추선불사 봉행

“굳건한 수행의지로 참 대승인의 본분 잊지 말아야”



불교총지종 창종조 원정 대성사 열반 27주기 멸도절 추선불사가 9월 8일 서울 총지사 원정기념관을 비롯해 전국 사원에서 일제히 봉행됐다.

원정 대성사는 초창기의 교리적, 행정적 착오를 반성하고 정확한 인계, 엄격한 의례와 사중수법을 비롯하여 교상(敎相)과 사상(事相)면에서 완벽한 체계를 갖춘 정통밀교의 확립에 심혈을 기울이는 한편, 총본산 서울 강남구 역삼동 총지사를 비롯하여 전국 30여개소에 사원을 건립, “즉신성불”과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기치로 밀교의 대중화에 진력했다.

원정 대성사는 초창기의 교리적, 행정적 착오를 반성하고 정확한 인계, 엄격한 의례와 사중수법을 비롯하여 교상(敎相)과 사상(事相)면에서 완벽한 체계를 갖춘 정통밀교의 확립에 심혈을 기울이는 한편, 총본산 서울 강남구 역삼동 총지사를 비롯하여 전국 30여개소에 사원을 건립, “즉신성불”과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기치로 밀교의 대중화에 진력했다.

원정 대성사는 초창기의 교리적, 행정적 착오를 반성하고 정확한 인계, 엄격한 의례와 사중수법을 비롯하여 교상(敎相)과 사상(事相)면에서 완벽한 체계를 갖춘 정통밀교의 확립에 심혈을 기울이는 한편, 총본산 서울 강남구 역삼동 총지사를 비롯하여 전국 30여개소에 사원을 건립, “즉신성불”과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기치로 밀교의 대중화에 진력했다.

“삼라만상 모두가 부처님 세계”

부산 삼밀사 만다라 봉안 대법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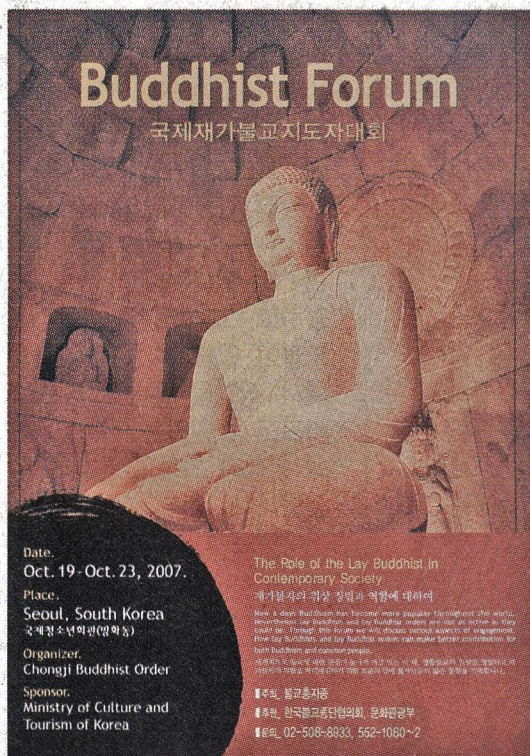
부산 삼밀사에서 태장계, 금강계 만다라 봉안 불사를 봉행하고 있다.

“우주의 삼라만상 모두 부처님의 세계, 법계의 세계, 이 법계가 그대로 부처님의 장엄한 출현이요, 지혜와 자비의 표시이니, 사사물물(事事物物)이 그대로 장엄한 불신(佛身)이라” 부산 삼밀사(주교 원승)는 지난 9월 14일 삼밀사 서원당에서 부산경남교구 스승과 부산경남지회 지회장 및 간부 보살, 서울경인교구 다수의 스승과 서울경인지회 김은숙 회장, 부산경남지회 신인록 회장, 삼밀사 교도들이 동참한 가운데 성스럽고, 장엄한 만다라 봉안불사를 봉행하였다.

종단의 불단 장엄화와 통일화의 일환으로 봉행된 만다라 봉안불사가 진행되고 있는 삼밀사 서원당에는 대일경에 근거하고, 생명의 성장과 탄생, 대일여래의 종교적 구원인 대비의 활동을 중심으로 그려진 태장계만다라 414존의 불보살과 금강정경의 실천철학과 보리심의 본성인 자성을 자각하고, 수행자의 관법을 통하여 깨달음에 이르는 1,461존의 금강계 만다라가 봉안됐다. 삼밀사 주교인 원 승 정사는 인사말을 통해 “삼밀사에서 만다라 봉안법회를 봉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삼밀사 회장 보살님을 비롯하여 보살님들의 지극한 정성과 발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라며 “만다라가 봉안되어 있는 서원당 안에서는 수 천 분의 불보살님들이 출현하여 시기와 질투, 아집과 집착, 미움과 원망심, 분별과 차별을 소멸시키고 자비와 사랑, 평등과 평화, 행복과 웃음, 여유와 풍요로움이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고 말했다. 또 “소원하고 바라는 모든 것을 성취시켜주시는 것이니 진리라 믿고, 굳건한 믿음과 신심을 가지고 일심으로 응맹정진할 때 소원은 성취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재가불교지도자대회 19일 개최

총지종 주관, ‘재가불자 위상정립과 역할’ 논의



불교총지종이 주관하는 국제재가불교지도자대회가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국제청소년회관을 비롯한 국내 일원에서 개최된다.

이번 대회는 기존 출가승 위주의 불교지도자대회와는 달리 미주, 유럽, 호주 및 아시아 세계 15개국 재가불교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총지종 중앙교육원이 주관하고 문화관광부와 불교종단협의 후원으로 개최되는 이번 대회에서는 세계 각국의 재가불교지도자들이 모여 현대사회에서 재가불자들의 역할에 대해 토론하고 우리나라의 재가불교 현황에 대해 소개한다. 이번 대회는 4박 5일의 일정으로 10월 20일 오전 10시 서울 방화동 국제청소년회관에서 재가불자의 위상정립과 역할 관련 주제발표회가 개최되며, 21일 설악산 만해마을에서 관련 세미나와 토론회가 열린다. 22일부터 23일엔 경주 불국사를 비롯해 설악산 신홍사, 등을 순례하는 한국불교 체험의 장이 마련된다. 이와함께 총지종 부산 정각사에서 중단 공식불공 법회와 한국전통문화를 소개하는 공연도 열릴 예정이다.

국제재가불교지도자대회 조직위원장 화령 정사는 “재가불자들의 역할과 재가불교의 발전방향에 대해 모색하는 기회를 갖고, 전 세계 재가불자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불교포교를 위한 상호정보교환과 협력을 이끌어 내는 것이 본 대회의 궁극 목적”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회 기획간사 총지종 중앙교육원 보경 연구원은 “향후의 불교포교는 출가승 위주가 아니라 재가불교 위주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번 대회를 전 세계 재가불자를 연결할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초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총지종은 이번 대회를 성공적으로 회향하고 매년 대회를 개최하여 전 세계 재가불자들의 단결과 상호협력을 이끌어 범과 동시에 불교총지종을 전 세계에 홍보, 중단 위상제고와 포교 활성화를 기하겠다는 계획이다. <관련기사 8면>



산사 뜰 앞 코스모스가 가을정취를 더해 준다. -수터사

종조법설

참회(懺悔)

상대 허물 보지 말고 내 허물을 고칠지니, 나에게도 무서운 품과 입과 뜻으로 지어 모은 큰 허물이 수미산과 같다. 내가 먼저 회사하고 그와 같은 큰 허물을 다시 짓지 않겠다고 참회하고 서원하면 나는 도로 복이 되어 일체고통 소멸되며 내허물이 없어질 때 저 허물 없어진다.

8면 국제 재가불교지도자대회 특집

10면 비로신앙 도량 흥천 수터사

제70회 추계강공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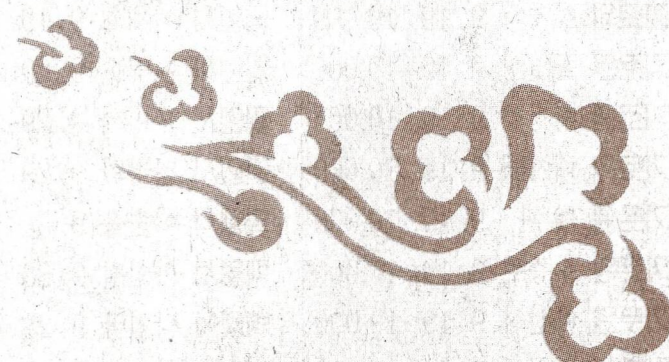
금강같은 정진, 교화 혁신과 종단 발전...

교화와 포교발전을 함께 고민하고 도모하고자 추계강공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전국 스승님들께서는 수회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 총기36년 10월 15일(월)~10월 18일(목)
- 장소 : 불교총지종 통리원
- 대상 : 종단산하 전 스승님



불교총지종 통리원장 원 승



풍경소리

용서



상대방이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생각하면 괴롭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들이 나에게 깨달음을 이루어 주기 위해 시련을 주는 것이니까 진심으로 고맙습니다'라고 한 생각만 고쳐 잡아도 마음이 편안해 집니다. 아무리 좋지 않은 일이라도 상대방에 대해 한발 물러서서 기도하고 발원하면 용서와 화해가 절로 이루어 집니다. 마치 연꽃 봉우리가 터지듯이 마음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이지요

-지운 스님(동화사 강주)



잡은 그릇을 딸아이라 생각하고 정성껏 닦습니다.
또 아들을 향한 기도의 마음을 담아 아들의 몸과 맘을 씻듯이 그렇게 설거지를 합니다.
그러자 제자들과 친구들도 생각이 납니다. 그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며 정성을 다해 그릇을 닦습니다.

-김남선(구암중학교 교사)

나는 누구인가



물속에 사는 물고기는 물을 알 수 없듯이 눈을 통해 세상을 보지만 짐작 자신의 눈은 볼 수 없습니다. 자기를 부리는 것은 자신이지만 우리는 그 주인공을 볼 수는 없습니다. 세상을 다 안다 하더라도 자신이 누구인지 모른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문운정(수필가)

설거지를 하면서

설거지 할 그릇들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싱크대 앞에 서서 일단 마음을 들여다 보니 힘들어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힘들어 하는 마음은 내보내고 대신 자애로움을 생각합니다. 설거지를 하다보니, 문들 딸아이가 떠오릅니다.

원정대성사와 함께 하는 VISUAL일교

-전수경면 제20화- 글.그림/정수일



이달의 명상

온몸 세포 구석구석까지 상쾌한 바람이 사무치는 계절. 그것은 풍성한 결실을 가져오는 가을이던가. 예년에 없이 더웠던 여름. 그 모두는 성장을 주고, 시련을 주고, 지혜를 주고, 이제 결실의 가을을 맞았다고나 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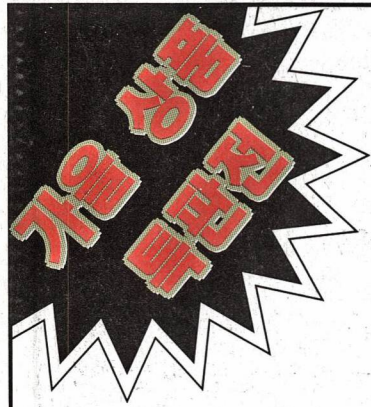


온 들 가득히 황금물결 일렁이고 산과 하늘 성숙의 상서를 가득 담았다. 자연에 못지 않게, 우리의 행업에 못지 않게, 우리를 마음 속에도 알찬 결실의 가을이고 싶다. 하얀 새꽃 물결치는 언덕에 알알이 영글은 도토리들 만져보며 거듭되는 인생 결실의 의미를 돌이켜 본다. 역시 인간의 성숙은 중단없이 진행되고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는 듯하지만 거기에는 완성이 없다. 종국이 없다. 끊임없는 완성이고 창조이다. 여름이 가는 풀벌레 소리, 골짜기 가득히 울려 퍼지는 벌레들의 합주를 들으면서 불자 정진의 가을을 생각해 본다.

- 광덕 스님 '명상언어집' 중에서

(주) 에스엠 커머스(생활가전/건강용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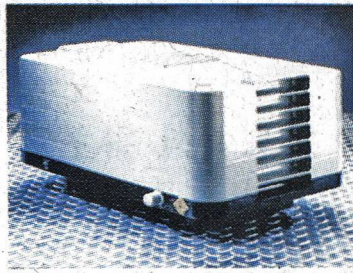
“시원한 가격에서, 고급스런 디자인에서 두 번 만족을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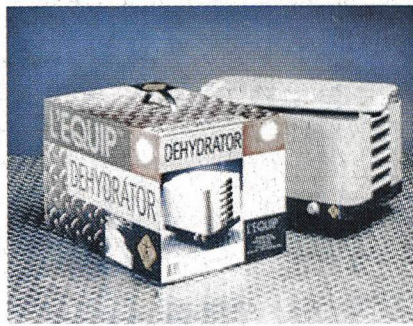
• 제품명: 대원 테이블 전기그릴 • 모 델: DWP-331
• 특 징: 조리팬, 본체 분리형, 식탁에서 요리하면서 사용가능 골드마블코팅처리
• 가 격: 35,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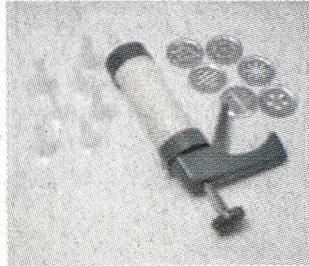
• 제품명: 피자팬 • 모 델: MU-1600N
• 특 징: 자동 온도조절 방식, 피자, 부침, 후라이, 전골, 구이 등 다양한 요리를 손쉽게 가능
• 가 격: 24,900



• LD-528 6단



• 제품명: 음식건조기 • 모 델: LDDD-528
• 특 징: 과일, 야채 건조 웰빙 상품 기본6단+네트+솔리드Tray27개
• 가 격: 소비자가 128,000(판매가 105,000)



• 리리저 키친(별매)

스팀다리미의 대표 브랜드... << 인기상품! >> 콘에어 스팀다리미

CONAIR GSK Professional FABRIC STEAMER



(주) 에스엠 커머스는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름 상품 기획전을 통해 보다 편안하고 시원한 여름을 약속드립니다.

상품 구입 문의 02·3431·0388(代) 팩스 02·3431·0240 경기도 하남시 감북동 311-1번지

지상설법

행복한 가정 만들기

가득 찬 이 세상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 왜냐하면 부족함이 없고, 불만이 없으며, 의심하고 걱정할 것이 없는 가정은 오직 부처님의 청정한 마음을 쓰며 생활하는 사람만이 만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끼고 존중하는데 정성 들여야

어떻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부처님이 시킨 대로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계신대로 하면 됩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지를 이미 알고 계십니다.

라도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마음을 잘 단속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불교신자들이 '행복한 가정 만들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였습니다.

오랜 세월 인연으로 정을 나눈 가족들이 서로서로 존중하고 아껴주며 사는 것이 한 가정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만듭니다.

지 못하면 불교를 믿는 보람이 무엇이었습니까? 가정을 가지고 함께 생활하는 가족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평화롭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지키는 책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문에 생활에 평안을 만들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공경하며 받들어서 오염된 마음을 없애고 매사에 수용하는 자세로 자기 책임을 다하는 부처님의 청정심이 나타나게 해야 합니다.



선도원 (총지사 주교)

중생의 오염된 마음은 매사에 거부감을 많이 나타내기 때문에 생활에 평안을 만들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공경하여 받들어서 오염된 마음이 없어지고, 매사에 수용하는 자세로 자기의 책임을 다하여 부처님의 청정심이 나타나게 해야 합니다.

가족 비하 절대 안돼

불자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자기의 가족을 비하하거나 가족과 싸워서는 안 됩니다. 서로가 존중하고 아껴주며, 도와주는 일에만 정성을 쏟아야 합니다.

우리 불교인들은 어떠한 상황을 맞이하든

여러분, 가정이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가족들이 사는 곳이라고요? 물론 그렇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가정은 두 사람 이상의 가족으로 구성된 사람들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곳이라 할 것입니다.

정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가족들의 생활에 행복과 평안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구성원 각자 책임 철저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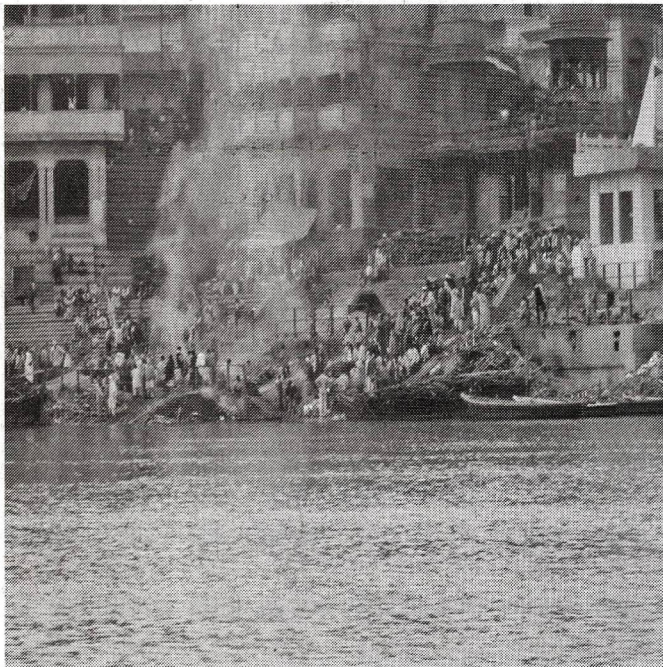
인간의 생활이란 단순한 생각으로 잘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며, 또한 일시적인 감정으로 잘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 중에는 가정이나 가족에 대한 생각이 매우 단순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불교는 사람들이 평소의 생활에서 오염된 중생의 마음을 쓰지 않고, 청정한 부처님의 마음을 써서 평안과 행복을 만들어 가지도록 가르치는 종교입니다.

불자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평소의 생활에서 부처님의 청정한 마음을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마음을 청정불심이라 하기도 하고 보리심이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것이 갖추어져서 부족함이 없고, 불만이 없으며, 의심하고 걱정할 것이 없는 가정이 가장 행복한 가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서로가 사랑하고 정을 나누며 살아야 하는 가족이니까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 가족을 비난하거나 싸우지 않으면 사랑하는 정이 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스캔지즈강가 화장터.

현재와 미래의 여래도 이 법으로 열반을 얻을 것이다. 비구는 그 몸과 느낌과 마음과 법, 이 네 가지에 대해 똑바로 관찰하고 끊임없이 정진하여 바른 생각과 지혜로써 세상의 허욕과 번뇌를 끊어 버려야 한다.

어떤 것이 몸을 바로 관찰하는 법인가. 비구가 숲속이나 나무 밑 혹은 고요한 곳에서 몸을 바로하고 앉아 오로지 한 생각으로 호흡을 조절하되, 길게 들이쉬고 내릴 때에는 그 길다는 것을 알고, 짧게 들이쉬고 내릴 때에는 그 짧은

울려 된 것임을 밝게 보아야 한다. 숨쉬는 백정이 소를 잡아 사지를 떼어 펼쳐 놓듯이 비구도 이 몸을 네 요소로 갈라 눈앞에 드러내 놓아야 한다. 숲속에 버려진 시체가 하루 이틀 지나면 부어 터지고 썩어 문드러지는 것을 보는 것과 같이 이 몸도 그렇게 되고 말리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거움, 고정된 불교 불력이 없음을 알아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이것이 비구가 느낌에 대해 관찰하는 법이다.

또 어떤 것이 마음을 관찰하는 법인가. 마음에 탐심이 일어난다면 '이것이 탐심이구나'라고 알고, 탐심을 버리면 버린 줄 알아야 한다. 이와 같이 성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 뒤바뀐 마음, 넓은 마음, 좁은 마음, 고요한 마음, 산란한 마음, 해탈한 마음, 해탈하지 못한 마음을 스스로 낚낚이 안팎으로 살피고, 그 마음이 일어나는 것과 사라지는 것을 관하여 눈앞에 대하듯 하면 세상의 어떤 집착이라도 놓아 버리게 된다.

진리의 여울

것을 알아라. 온몸으로 들이쉬고 내쉬는 것을 알아 마음을 다른 데로 달아나지 못하게 하라.

이 몸을 관찰하되 몸이 어디 갈 때에는 가는 줄 알고 머물 때에는 머무는 줄 알며, 앉고 누울 때에는 앉고 누웠다는 상태를 바로 보아 생각이 그 몸의 동작 밖에 흩어지지 않게 하여라. 어떤 사물에도 집착하지 말고 다만 이 몸 관찰하는 데에 머물게 하여라.

또한 이 몸이 애초에 무엇으로써 이루어졌는지 사실대로 관찰해야 한다. 이 몸은 지수화풍 네 가지 요소가 한데 어

못하리라는 것을 관찰하면 세상의 모든 집착을 버리게 될 것이다. 비구는 몸에 대해 이와 같이 관찰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때와 장소를 따라 그 느끼는 작용에 대해 어떻게 관찰할 것인가. 느낌에는 세 가지가 있다. 괴로움을 느끼는 작용, 즐거움을 느끼는 작용,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음을 느끼는 작용이다.

끝으로 어떤 것이 관찰하는 것인가. 안으로 탐욕이 있으면 있는 줄 알고 없으면 없는 줄 알며, 또 탐욕이 일지 않았더라도 일어난 것으로 관하고, 일어났을 때에는 없어진 것으로 관하며, 이미 없어진 것은 앞으로도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관하는 것이다.

비구들은 이와 같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모두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중이함 염처경)

사념처법(四念處法)

부처님께서 쿠루수의 서울 캄마싯담마에 계실 때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중생의 마음을 깨끗이 하고 걱정과 두려움에서 건지며 고뇌와 슬픔을 없애고 바른 법을 얻게 하는 유일한 길이 있으니 곧 사념처법(四念處法)이다.

사회복지법인 아이들과 미래, 증권선물거래소, 서울옥션과 함께 하는

Dream Art Workshop 작품 전시회



* 드림아트 워크샵이란?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후원과 서울옥션 자선경매 수익금으로 진행되는 "드림아트워크샵"은 예술활동을 통해 아이들의 성취감을 높이는 동시에 자신감과 책임감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차 전시회는 부산지역의 동래구 지역의 3개소의 지역아동센터가 참여하여 1차의 전시회와는 차별화된 전시품으로 작품전시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 장 소 : 동래구 동래문화회관 전시실
일 시 : 2007년 10월 27일~28일
식전행사 : 10월 27일 오전 11시부터
개방시간 : 오전 10시 ~ 오후 6시까지
참여기관 : 바리밀지역아동센터, 푸른 지역아동센터, 해오름지역아동센터
부대행사 : 동래구 연합 "사생대회" 개최

* 축하공연 : '동래지역아동센터' 와 '아이나라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의 오카리나 공연.

* 지역아동센터란?

-지역에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청소년에게 지역사회 안에서 사회복지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입니다.

* 이용대상 :

- 지역사회 내 보호가 필요한 초등학생(바라밀)
- 가정에서 부모의 의한 보호와 양육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어려운 상황의 아동
- 실직·빈곤양극화 등으로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교육지원이 필요한 아동
- 가족의 해체와 기능 상실로 도움이 필요한 아동

살기쉬운 밀교상식<6>

티벳밀교 ②

송첸감포왕의 시대에 시작된 티벳밀교는 8세기에 티송데첸왕이 초빙한 찬드라굽타와 빠드마 삼바...

사와 마루빠가 있다. 아티샤(982~1054)는 인도 벵갈 출신의 국왕의 아들로써 재가자이면서 밀교...



◇밀라레빠.

보여지는 행법의 대부분을 관념화한 것도 그의 공적이다. 쯡카빠란 이름은 지금의 중국 청해성 쯡카...

람다르마의 황불교 제2의 전성기

아티샤와 마루빠에 의한 밀교중흥

운이 일고 있는 가운데서 립첸 삼포가 인도로부터 다시 밀교를 가져왔다. 그는 서북 인도의 카슈미르에 7년간 유학하고 인도밀교의 학장으로...

11세기 중엽 후기밀교가 티벳에 전해져 몇 개의 종파가 형성되었다. 그 가운데에 중요한 인물은 아티샤와 마루빠가 있다. 아티샤(1012~1097)는 통역관인 도그미로부터 범어를 배웠는데 도그미 또한 헤바즈라 판프라의 숙달자로 알려져 있다...

(1290~1364)의 사상을 계승했다. 그는 티벳 전역을 돌아다니며 고승과 밀교수행자들을 방문하고 대소승 및 밀교의 여러 가지 경전을 공부했다. 그는 문수보살로부터 직접 법을 들었다고 하며 평생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돌아다니며 제자를 양성하고 저술에 힘썼다. 그의 대표작은 <보리도차제론>과 <비밀도차제론>이며 이를 통하여 밀교와 현교의 체계화를 이루었다. 그의 만년에 그에 의해 시작된 켈룩파는 티벳 최대의 종파가 되었으며 17세기에는 달라이라마 5세가 나와 티벳의 종교와 정치를 장악했고 오늘날까지도 그 전통은 이어지고 있다. 티벳 망명 정부를 이끌고 있는 지금의 달라이 라마는 14세이다. 티벳밀교의 후전기에는 밀교가 거의 대세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에 현재까지 세력을 떨치고 있는 종파는 달라이 라마를 배출한 켈룩파를 비롯하여 남파파, 가담파, 사카파, 까꾸파 등이 있다. <화령/철학박사·교육원장>



◇마루빠.

불교설화 <15>

인과의 구슬

-악인과과

왜정 때의 일이나 평안도 어느 시골에서 있었던 사건이다. 당시 이 지방에서 감사직을 맡고 있었던 이의 산 경험담이다. 그는 지금 동국대학교에서 교직생활을 하고 있으니, 이 사건은 하도 신기해서 수궁기 어려운 데가 있으나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한 촌사람이 장날에 돼지를 팔고 돈을 받았는데 75원이었다. 그때의 75원은 적은 돈이 아니었다. 이 거금을 주머니에 넣어서 허리띠에 단단히 매어달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었는데 날씨도 몹시 추워서 마침 외딴 주막을 찾아가서 소주 한잔을 청하였다.

방안에서는 사람들이 지껄이고 있는 듯 싶었는데 대답이 없다. 재차 청하되 「소주 한 잔만 주시오.」 하였다. 「네, 나갑니다.」 하는 소리만 내던지고 냉큼 나오지를 않는 다. 방안에서는 젊은 미녀의 정답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았다. 한때 때마침 이 사람은 대변이 마려워서 그 주막 울타리 뒤 허술한 뒷간에 가서 허리띠를 풀어 울타리에 걸어놓고 용변을 보았다.



이때에 눈치 챈 경찰관은 같이 왔던 동료에게 젊은 남녀를 잘 감시하도록 이르고 촌사람으로 하여금 파보게 하였다. 구덩이 속에서 돈주머니가 나오니 모두가 이상하다는 듯이 바라보고 있었다. 돈주머니가 나오니 모두가 이상하다는 듯이 바라보고 있었다. 돈주머니가 나오니 모두가 이상하다는 듯이 바라보고 있었다.

이 사람은 황급히 쪽제비가 사라진 쪽으로 쫓아가 보았으나 그 집 울타리 근처에서 종적을 감추고 말았다.

쪽제비에 돈주머니를 빼앗긴 촌사람은 화가 치밀어 술청으로 찾아가자마자 「무엇을 하고 있는거야. 당신네가 얼른 나와서 술을 주었던 내가 쪽제비에게 큰 돈을 빼앗기지 않았을 터인데...」 하고 항의하였다.

결국 돈을 변제해달라고 요청하면서 큰 소리로 욕설을 퍼부었다.

하기야 이 돈은 혼수감을 마련하기 위해 집에서 기르던 돼지를 팔았던 것이니 그의 꼴이 말이 아니었다. 그런데 이때 방안 있던 젊은 미녀가 튀어나오면서 「이 사람이 미쳤는가, 터무니없이 거짓말을 늘어놓으면서 돈을 내라니, 미쳐도 이만저만 미친게 아니로구먼. 아무도 오고간 사람이 없는데 무슨 돈타령이야...」 하면서 (이 화적때 같은 놈)이라고 마구 덤벼드는 것이었다.

「사람 도둑이 아니라 당신네 집 쪽제비가 훔쳐갔단 말이야...」 이렇게 말하니 「이 사람이 참으로 정신이 돌았군. 쪽제비가 어떻게 돈주머니를 훔친단 말인가. 그런 엉터리없는 수작 말고 어서 돌아가라.」 고 욕박지른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서로 목살을 잡고 싸움이 벌어졌다. 서로 고약한 냄새가 풍기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 더욱 괴이하게 여긴 경찰은 빨리 파보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재촉하고 촌사람도 신기한 듯이 구멍을 크게 파헤쳤다.

로 치고받고 하는 격투가 벌어진 것이다.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여자는 겁이 나서 그곳에서 멀지 아니한 경찰 주재소에 달려가서 고발을 하기에 이르렀다.

곧 경찰관 두 사람이 들이닥치니 싸움은 일단 끝이 났으나 어쨌든 분을 참을 수 없는 것은 촌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는 자초지종을 소상히 설명하였는데 경찰관 역시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바른 말을 하라고 충고를 하면서 도리어 우락부락 소리를 내지른다.

그러나 이 사람은 절대로 사실과 다름없다는 것을 재삼 강조하니 경찰관은 이 촌사람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의 허리춤을 보니 과연 새끼로서 허리띠를 하고 있는 것이었다. 경찰관이 「그렇다면 그 쪽제비가 어느 쪽으로 갔느냐.」

고 물었다. 촌사람의 말대로 굴뚝 뒤를 살펴보니 쪽제비가 드나들 만한 구멍 하나가 있었다.

경찰관은 주인 여자를 불러내어 괜이로 파보게 하였다. 여자는 표정을 달리하면서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고 서 있을 뿐 좀처럼 움직이려 하는 눈치가 아니었다.

이때에 눈치 챈 경찰관은 같이 왔던 동료에게 젊은 남녀를 잘 감시하도록 이르고 촌사람으로 하여금 파보게 하였다. 구덩이 속에서 돈주머니가 나오니 모두가 이상하다는 듯이 바라보고 있었다. 돈주머니가 나오니 모두가 이상하다는 듯이 바라보고 있었다.

이때에 눈치 챈 경찰관은 같이 왔던 동료에게 젊은 남녀를 잘 감시하도록 이르고 촌사람으로 하여금 파보게 하였다. 구덩이 속에서 돈주머니가 나오니 모두가 이상하다는 듯이 바라보고 있었다. 돈주머니가 나오니 모두가 이상하다는 듯이 바라보고 있었다.

이때에 눈치 챈 경찰관은 같이 왔던 동료에게 젊은 남녀를 잘 감시하도록 이르고 촌사람으로 하여금 파보게 하였다. 구덩이 속에서 돈주머니가 나오니 모두가 이상하다는 듯이 바라보고 있었다. 돈주머니가 나오니 모두가 이상하다는 듯이 바라보고 있었다.

이때에 눈치 챈 경찰관은 같이 왔던 동료에게 젊은 남녀를 잘 감시하도록 이르고 촌사람으로 하여금 파보게 하였다. 구덩이 속에서 돈주머니가 나오니 모두가 이상하다는 듯이 바라보고 있었다. 돈주머니가 나오니 모두가 이상하다는 듯이 바라보고 있었다.

이때에 눈치 챈 경찰관은 같이 왔던 동료에게 젊은 남녀를 잘 감시하도록 이르고 촌사람으로 하여금 파보게 하였다. 구덩이 속에서 돈주머니가 나오니 모두가 이상하다는 듯이 바라보고 있었다. 돈주머니가 나오니 모두가 이상하다는 듯이 바라보고 있었다.

이때에 눈치 챈 경찰관은 같이 왔던 동료에게 젊은 남녀를 잘 감시하도록 이르고 촌사람으로 하여금 파보게 하였다. 구덩이 속에서 돈주머니가 나오니 모두가 이상하다는 듯이 바라보고 있었다. 돈주머니가 나오니 모두가 이상하다는 듯이 바라보고 있었다.

이때에 눈치 챈 경찰관은 같이 왔던 동료에게 젊은 남녀를 잘 감시하도록 이르고 촌사람으로 하여금 파보게 하였다. 구덩이 속에서 돈주머니가 나오니 모두가 이상하다는 듯이 바라보고 있었다. 돈주머니가 나오니 모두가 이상하다는 듯이 바라보고 있었다.

이때에 눈치 챈 경찰관은 같이 왔던 동료에게 젊은 남녀를 잘 감시하도록 이르고 촌사람으로 하여금 파보게 하였다. 구덩이 속에서 돈주머니가 나오니 모두가 이상하다는 듯이 바라보고 있었다. 돈주머니가 나오니 모두가 이상하다는 듯이 바라보고 있었다.

이때에 눈치 챈 경찰관은 같이 왔던 동료에게 젊은 남녀를 잘 감시하도록 이르고 촌사람으로 하여금 파보게 하였다. 구덩이 속에서 돈주머니가 나오니 모두가 이상하다는 듯이 바라보고 있었다. 돈주머니가 나오니 모두가 이상하다는 듯이 바라보고 있었다.

이때에 눈치 챈 경찰관은 같이 왔던 동료에게 젊은 남녀를 잘 감시하도록 이르고 촌사람으로 하여금 파보게 하였다. 구덩이 속에서 돈주머니가 나오니 모두가 이상하다는 듯이 바라보고 있었다. 돈주머니가 나오니 모두가 이상하다는 듯이 바라보고 있었다.

이때에 눈치 챈 경찰관은 같이 왔던 동료에게 젊은 남녀를 잘 감시하도록 이르고 촌사람으로 하여금 파보게 하였다. 구덩이 속에서 돈주머니가 나오니 모두가 이상하다는 듯이 바라보고 있었다. 돈주머니가 나오니 모두가 이상하다는 듯이 바라보고 있었다.

이때에 눈치 챈 경찰관은 같이 왔던 동료에게 젊은 남녀를 잘 감시하도록 이르고 촌사람으로 하여금 파보게 하였다. 구덩이 속에서 돈주머니가 나오니 모두가 이상하다는 듯이 바라보고 있었다. 돈주머니가 나오니 모두가 이상하다는 듯이 바라보고 있었다.

이때에 눈치 챈 경찰관은 같이 왔던 동료에게 젊은 남녀를 잘 감시하도록 이르고 촌사람으로 하여금 파보게 하였다. 구덩이 속에서 돈주머니가 나오니 모두가 이상하다는 듯이 바라보고 있었다. 돈주머니가 나오니 모두가 이상하다는 듯이 바라보고 있었다.

이때에 눈치 챈 경찰관은 같이 왔던 동료에게 젊은 남녀를 잘 감시하도록 이르고 촌사람으로 하여금 파보게 하였다. 구덩이 속에서 돈주머니가 나오니 모두가 이상하다는 듯이 바라보고 있었다. 돈주머니가 나오니 모두가 이상하다는 듯이 바라보고 있었다.

종조탄신 100주년 기념 종조법설집 명상용 CD, 테잎 출시



종조탄신 100주년 창종 35주년 기념 종조법설집 명상용 CD와 테잎이 나왔습니다. 출시된 종조법설집 명상용 CD와 테잎은 편안한 배경음악에 전문성우의 음성으로 더빙해 누구나 듣기 쉽도록 만들었습니다. 다소 딱딱할 수 있는 책으로 된 종조법설을 귀로 들을 수 있게 한 것은 원정 종조의 사상과 유훈을 이땅에 다시 살아나게 한다는 큰 의미가 있는 불사 일 것입니다. 총지중은 이번 종조법설집 명상용 CD와 테잎 등을 비롯한 오디오 자료들을 활용하여 명상이나 요가수행 등 다양한 수행법을 연구 개발한다는 계획에 있습니다. 종조법설집 명상용 CD와 테잎에 대한 자세한 문익는 서울 통리원 전화 02)552-1080~3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불교총지중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76-2 / 전화 02)552-1080~3 / 팩스 02)552~1082

특별작담

국제재가불교지도자대회를 앞두고

이번 달 19일부터 5일간에 걸쳐 거행되는 세계불교지도자대회를 앞두고 본 대회의 조직위원장인 중앙교육원의 화령정사에게 대회의 개요와 일정, 준비과정 등에 대하여 들어본다.

▲화령 정사님 안녕하십니까? 국제 재가불교지도자대회를 앞두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시느라 바쁘시다고 들었습니다. 이번 대회의 성격이 대략 어떤 것인지요?

화령 - 대회의 이름에서 나타나듯이 세계 여러 곳의 재가불교지도자들을 초청해서 고견을 들어보는 자리입니다. 물론 국내에서도 각계의 재가불자대표가 의견을 발표합니다. 정보화시대라고 일컬어지는 오늘날과 같은 시대에 재가불자들은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불교를 실천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하자면 재가불자의 위상을 정립하고 그 역할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토의내용 중에는 아마 요즘과 같은 시대에 출가가 반드시 필요한지, 그리고 일상생활 가운데서 살아있는 불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이 오고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회는 수많은 재가불자대중들이 자신들의 생활방식에 적합한 수행의 방법을 모색하고 재가자와 출가자의 관계정립을 통하여 진정한 불자로 거듭 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예, 그렇군요. 대회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화령 - 이번 달 19일부터 23일까지 4박 5일의 일정으로 예정으로 개최됩니다.

▲그럼 대회는 어디에서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화령 - 첫째 날 서울에 집결한 다음 둘째날은 방화동에 있는 서울청소년국제센터에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그런 다음 설악산 만해마을로 이동해서 이를 동안 각 나라의 재가불교활동에 대해 토의합니다. 넷째 날은 경주로 이동해서 석굴암과 불국사 등 불교관련 문화재를 소개하고 부산 정각사에서 생활불교로서의 총지종 특

유의 법회를 참관하게 됩니다. 마지막 날은 부산에서 전통음악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공연을 관람하게 됩니다.

▲주로 참가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여러 나라에서 많은 분들이 오신다고 들었는데요.

화령 주제를 발표하는 분들은 15개국 20여명 정도가 됩니다. 미국, 영국, 캐나다, 독일, 이탈리아 등 주로 유럽 불자들이 많고 중국, 인도, 네팔 등지에서도 참가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국내에서 재가불교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물론 참석하고요.

▲불교 세미나에 한 주제를 가지고 이처럼 다양한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라 생각합



데에는 출가와 재가의 구분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출가는 사회로 다시 돌아와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한 일시적인 격리일 뿐이지 출가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혼탁한 세상에 머물면서 청정하게 사는 것이 오히려 더 빛을 발하는 시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연기의 세계에서 바라보면 출가와 재가는 손등과 손바닥처럼 떨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출가나 재가는 하나의 선택의 문제일 뿐이지 어디서 어떤 형식으로 불법을 실천하는가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생활과 밀접한 생활 불교, 재가불교가 더 빛을 발하는 시대 아닌가 생각하

개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나라 불교는 어떤 면에서는 우물 안 개구리가 되어버서 그저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불교의 모습에 익숙해져서 자꾸 퇴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생활가운데에서 실천되어 그야말로 살아있는 불교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많습니다. 특히 재가불자들은 그저 출가승단을 의호하며 보시나 잘하면 된다는 소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가불자는 근본적으로 출가승보다 열등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불자로서의 깨달음이라는 본래의 목적은 잊어버리고 그저 복만 비는 모양이 되어버렸지요. 이래서는 불교가 퇴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들에 대한 반성으로서도 외국의 불자들과 함께 생활가운데에서 어떻게 부처님의 말씀이 실천되어야 하며 생활과 깨달음을 병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많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말하자면 재가불자들의 자신감회복으로 살아있는 불교를 만들기 위한 자리가 많이 만들어져 우리 불교가 인류의 진정한 정신적 지주로 자리 잡게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재가불교의 위상 정립과 진정한 생활불교 실천을 위한 자리

유럽의 재가불교지도자 대거참석

재가불자의 자신감회복 계기가 되도록

니다. 언제부터 대회를 준비하셨으며 준비기간 동안에 어려웠던 점은 없었는지요?

화령 - 기획운영위원장인 보경 김종인박사와 작년 말부터 우리나라의 불교발전을 위해서 이런 대회를 개최해야 되겠다고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기획되고 실무가 진행된 것은 금년 7월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예산 확보가 어려워 확실하게 결정을 하기 어려웠습니다. 좀 더 시간이 넉넉했으면 여러 가지 준비들이 더욱 완벽하게 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점이 대회를 목전에 앞둔 지금도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어려운 점이라면 아무래도 예산부족을 들 수 있겠지요. 문화관광부에서 대부분의 경비를 지원받고 종단에서도 지원을 일부 받지만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저예산으로 이런 큰 대회를 치루려다 보니

까 아무래도 인력면에서도 손이 많이 부족하지요. 그래도 주위의 여러 뜻 있는 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그러저럭 준비는 마쳤습니다.

▲이런 대회를 개최하게 된 동기는 어떤 것입니까?

화령 - 우리 종단이 재가종단이고 또 지금의 시대는 출가라는 방식만을 고집하는 시대 아니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재가불교에 대한 위상정립과 함께 재가불자들은 일상생활과 병행하여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을가에 대하여 여러 의견을 들어보기로 한 것입니다. 요즘은 출가한다고 하여도 사실은 옛날처럼 그렇게 수행에 좋은 환경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아시아시과 대부분의 유명사찰과 그 주변은 거의 유원지화 되어 있고 절에도 텔레비전이 인터넷이 다 들어와 있는데다가 휴대폰 안가지고

다니는 스님들도 점차 보기 힘들어집니다. 이런 것들이 출가승들의 수행에 많은 방해요소가 되지요. 거기다가 사원 운영하려면 사회경문과 사회에서 요구하는 일정 수준의 교육정도는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회와 관계를 밀접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옛날처럼 나무 밑이나 동굴과 같은 조용한 곳을 찾아 수행하다가 끼니때가 되면 마을에 내려가 걸식이나 한 차례하고 돌아와 다시 수행에 전념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거기다가 병역문제며 교육, 그리고 핵가족으로 인한 가족의 부양책임 등 출가 자체가 매우 어려운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출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면에서 사회와 단절되기가 어려운 시대상황 때문에 출가의 의미가 퇴색되어버렸지요. 경전에 보면 부처님께서도 분명히 수행하는

여 이러한 행사를 기획했던 것입니다. 유럽의 많은 불자들은 생활과 수행을 잘 조화시킨 생활불교를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고견을 들어보는 것도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겠지요.

▲그럼 앞으로 이런 대회를 계속하실 생각이신지요? 끝으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령 - 이번 행사를 잘 치러내고 앞으로 이런 대회를 정기적으로

▲감사합니다. 장시간 인터뷰에 응 해주셔서요. 아무쪼록 이번 행사가 원만하게 잘 치러질 수 있도록 기원하겠습니다.

화령 -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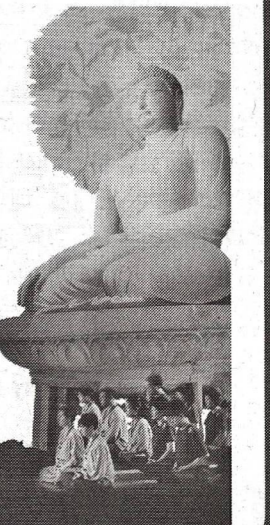
- 대담 : 지정 정사, 정리 : 최민희

INVITATION BUDDHIST FOR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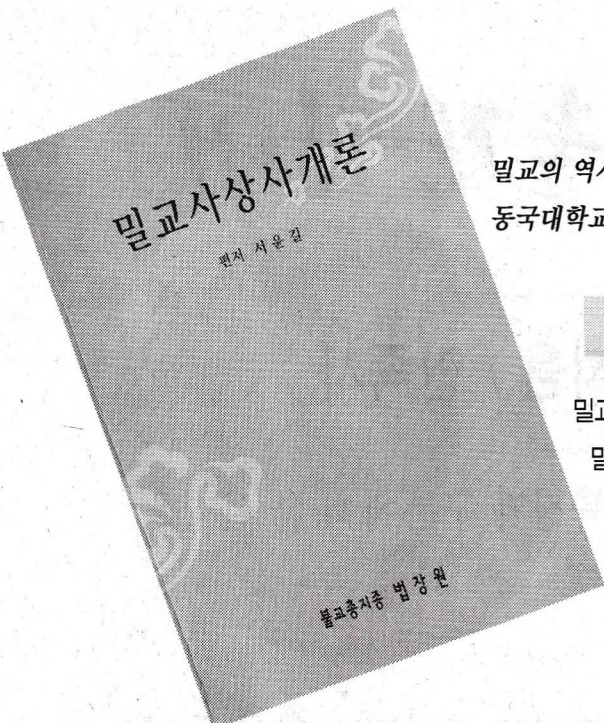
국제재가불교지도자대회

일시: 2007년 10월 19(목)~23(일)
장소: 국제청소년회관 대회의실(방화동)

주최: 불교총지종 | 후원: 한국불교총연합회, 문화관광부



『밀교사상사개론』



밀교의 역사와 교리에 대한 국내 최초의 본격적 개론서!!!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서운길 교수 외 7명의 밀교학자가 공동 집필...

주요내용

밀교란 무엇인가/밀교의 기원과 형성/밀교의 성립과 전개/
밀교의 사상과 그 교학적 배경/밀교의 수행과 실천/한국의 밀교/
부록: 한국현대밀교와 원정대성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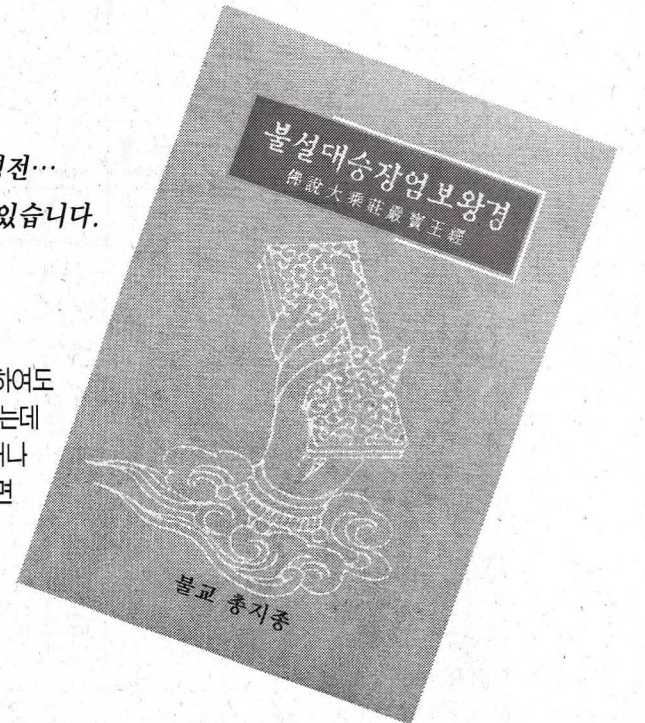
국판/437페이지/정가 15,000원

『불설대승장엄보왕경』 (佛說大乘莊嚴寶王經)

유자대명다라니 <옴마니반메훎>의 유래와 공덕을 설한 경전...
이 경을 지니기만 하여도 무량한 복덕과 안락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유정들이 오직 이 경의 이름만 생각하여도
이러한 이익과 안락을 얻는데
만약 누군가 이 경을 듣고 베껴쓰거나 수지하거나
독송하거나 공양하고 공경하면
그 사람은 항상 안락을 얻을 것이니라."
---본문 중에서 ---

변형 국판/130페이지/정가 7,000원



도서출판 불교 총지종

Tel:(02)552-1080 서울 강남구 역삼동 776-2

Buddhist Forum

국제재가불교지도자대회



- **대회기간**
2007년 10월 19일(금)-23일(화)
- **장 소**
국제청소년회관 대회의실(방화동)

제1부 주제발표

- 일시 : 10월 20일(토) 오전 9시-오후 3시
- 장소 : 국제청소년회관 대회의실(방화동)

제2부 토론

- 일시 : 10월 21일(일) 오전 9시-오후 5시
- 장소 : 설악산 만해마을 세미나실

제3부 한국문화체험

- 일시 : 10월 22일(월)-23일(화)
- 장소 : 경주 불국사, 총지종 정각사(부산)
코모도호텔 대연회실

The Role of the Lay Buddhist in Contemporary Society

재가불자의 위상 정립과 역할에 대하여

Now a days Buddhism has become more popular throughout the world. Nevertheless lay Buddhists and lay Buddhist orders are not as active as they could be. Through this forum we will discuss various aspects of engagement. How lay Buddhists and lay Buddhist orders can make better contribution for both Buddhism and common people.

세계적으로 불교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는 이 때, 생활불교의 위상을 정립하고 재가불자의 역할을 자리매김하기 위한 토론의 장에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기대합니다.

- **주최** 불교총지종
- **후원**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문화관광부
- **문의** 02-508-8933, 552-1080~2